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물가/
외국인투자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75.6(2000=100)로, 중공업과 경공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6.5%, 3.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7.4% 감소함 ○ 2월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74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9.2%, 대형마트는 31.5%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8.8% 증가함 ○ 3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를 나타냄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3%로 남자는 74.5%, 여자는 50.9%임 ○ 3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4,883천명으로, 2006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던 3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동일하게 나타남 ○ 3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한 4.2%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7%p)는 2월에 비해 소폭 감소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8,5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9.7%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 서 95.5% 증가함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상승폭이 보합을 유지함 - 3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0.7%)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세 큰 폭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55조 7,704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 1,438억 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8,648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 3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 부도업체 수 증가, 어음부도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3.3%(355개) 증가한 1,879개임 - 3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9개) 보다 6개 증가한 65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하고,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3월 기준 KOSPI 지수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중 KOSPI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등 미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 반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1,452.55p로 마감됨 ○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크게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말 은행의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생 · 산 |

2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대비 감소

■ 전국 산업생산 둔화

- 2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설연휴 이동(06년 1월→07년 2월)에 따른 조업일수가 감소(22.5일→20.5일) 영향으로 0.4% 소폭 감소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1월 11.3%→2월 6.7%)되는 가운데 영향음향통신(-18.4%)과 자동차 생산(-6.3%)이 감소하는 등 조업일수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

- 2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75.6(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기계 및 장비,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인쇄출판, 전기·가스, 조립금속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산업생산 감소, 경공업부문 감소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6.5% 감소하여 지난달의 증가세가 한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됨
- 세부업종별로 자동거래단말기 생산 증가가 반영된 컴퓨터 및 사무기기(121.6%)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 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79.3%), 조립금속(샷시문 및 창틀, -37.2%), 기타기계 및 장비(주차기, -33.4) 등의 대부분은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하여 전년대비 경공업의 산업생산은 감소세가 이어짐
- 세부업종별로 종이제품(27.2%), 가죽·가방 및 신발(23.8%) 등은 증가하고 음식료품(-24.8%), 섬유제품(-19.7%) 등은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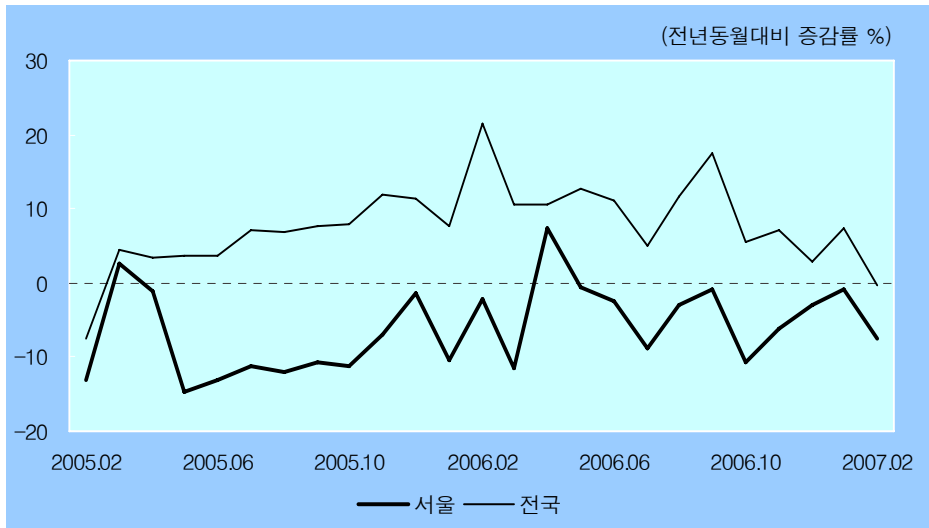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21.4 (-2.3)	5.5 (0.3)	7.1 (-0.2)	3.0 (-2.8)	7.5 (1.3)	-0.4 (0.5)
	서울 (제조업)	-2.0 (-6.1)	-10.6 (-4.5)	-6.2 (8.9)	-2.3 (8.3)	0.2 (-14.8)	-7.4 (-13.2)
	중공업	-21.6 (3.3)	-22.2 (-9.9)	-21.6 (11.2)	-13.8 (25.2)	6.7 (-14.2)	-16.5 (-19.1)
	경공업	8.8 (-9.4)	-6.4 (-2.8)	-0.2 (8.1)	2.7 (3.0)	-2.0 (-14.9)	-3.7 (-11.0)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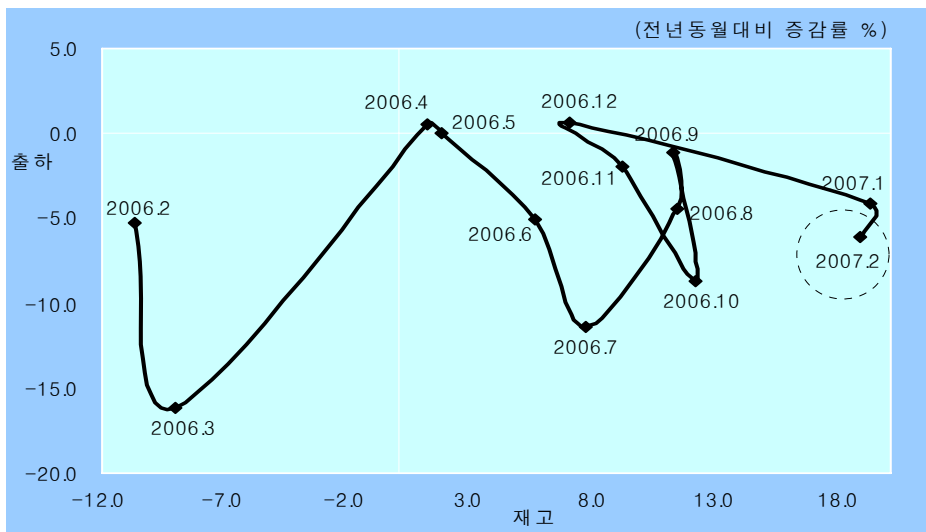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2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2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하고, 재고는 18.8%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재고증가를 둔화폭 보다 출하감소를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는 소폭 하향하고 재고도 소폭 하향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

- 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4.7%로 전월대비 2.1%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전월 보다 9.3%p 상승한 200.0%로, 전월에 이어 또다시 2006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240.2%, 경공업부문이 185.6%로, 전월대비 각각 20.4%p, 5.6%p 상승하였고, 특히 중공업부문의 높은 재고율이 서울 제조업 재고율 상승에 영향을 줌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재고율	전국	101.2	92.1	92.8	94.4	96.8	94.7
	서울 (제조업)	167.4	172.9	149.5	135.0	190.7	200.0
	중공업	158.9	153.7	135.3	113.9	219.8	240.2
	경공업	173.1	176.7	152.2	141.1	180.0	185.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2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으로 증가

- 2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9,25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하여 한 달만에 감소세가 증가세로 반등됨. 이는 설 연휴 이동에 의한 영향에 기인함
- 백화점은 음식료품, 신발,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대형마트는 음식료품, 의복, 화장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1.1% 큰 폭으로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으로 증가

- 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2,740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백화점 판매액은 9.2%, 대형마트는 31.5%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8.8%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경우 설 특수의 이동(06년 1월→07년 2월)에 따른 음식료품 및 화장품, 서적·문구류 등 선물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함
- 대형마트부문은 설 특수의 이동에 따른 음식료품 판매 증가 및 의복, 가방, 신발 등 신학기용품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1.5%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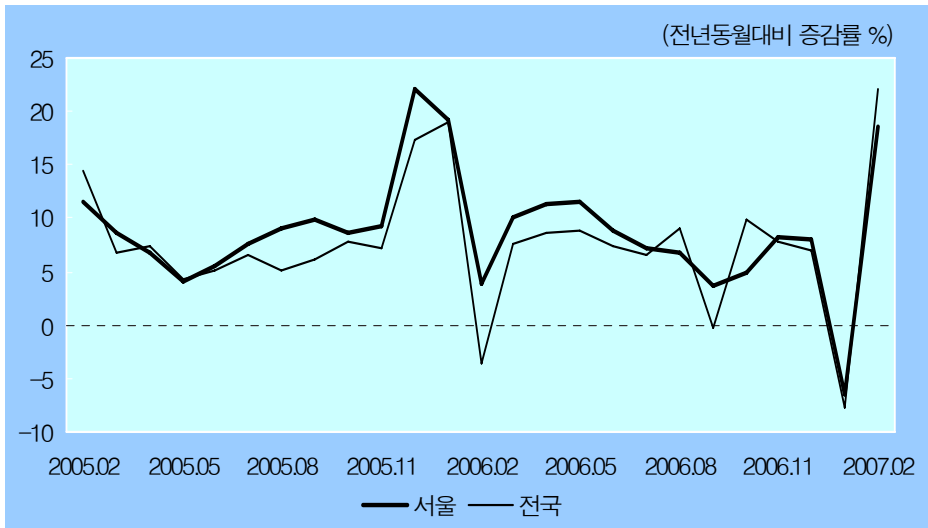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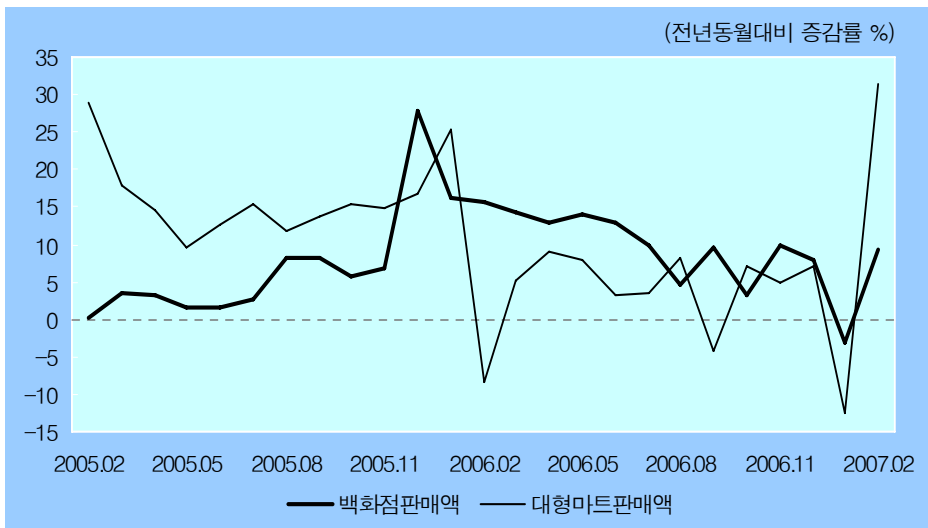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판매액	전국	3,232 (-3.6)	3,990 (9.5)	3,791 (7.8)	4,369 (6.9)	3,679 (-7.3)	3,945.1 (22.0)
	서울	1,074 (3.8)	1,319 (4.9)	1,277 (8.2)	1,555 (8.0)	1,253 (-6.5)	1,274.0 (18.6)
	백화점	609 (15.6)	782 (3.1)	750 (9.9)	966 (7.9)	725 (-3.1)	664.8 (9.2)
	대형마트 (할인점)	432 (-8.4)	504 (7.1)	496 (4.9)	548 (7.1)	485 (-12.5)	567.3 (31.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3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 전월과 동일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3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소폭 하락함
- 이는 농축산물(-1.7%)이 하락하였으나 개인서비스(1.6%), 공업제품(0.5%), 공공서비스(0.3%), 집세(0.1%) 등이 포함되거나 소폭 상승한 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3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과 비슷한 상승세를 나타냄
- 이는 전국의 물가상승률과도 비슷하나, 지난 5년간 3월 평균 물가상승률(0.76%)과 비교할 때 0.06%p를 하회함
-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0.6%), 교양·오락 부문(-0.5%) 부문 등은 하락하였으나 납입금 인상에 따른 교육(3.9%), 보육시설이용료 등이 오른 가구집기·가사용품(2.6%), 학교급식비 등이 인상된 외식·숙박(0.6%) 등은 상승함

■ 서비스부문 큰 폭으로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1%, 서비스부문은 0.9% 상승하여 서비스부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수산물은 전월대비 1.3% 하락하고 공업제품은 LPG(자동차용), 이동전화기 등은 내렸으나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공공서비스부문은 도시가스 등은 하락하였으나 납입금(국공립)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하고, 개인서비스부문은 단체여행비(해외) 등은 하락하였으나 납입금(사립), 보육시설이용료 등이 올라 전월대비 1.5% 상승함

■ 신선식품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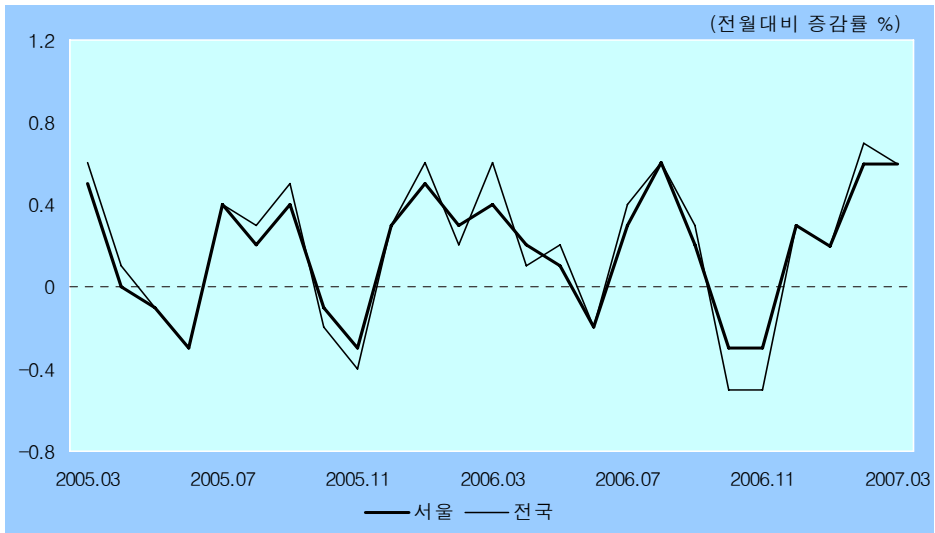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1.1%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0.3%p)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채소(-6.2%)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영향으로 6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 월 비	전국	0.6 (2.0)	-0.5 (2.2)	-0.5 (2.1)	0.3 (2.1)	0.2 (1.7)	0.7 (2.2)	0.6 (2.2)	
	서울	0.4 (1.7)	-0.3 (2.1)	-0.3 (2.1)	0.3 (2.1)	0.2 (1.8)	0.6 (2.1)	0.6 (2.3)	
	상품 성질별	상품	-0.3 (0.9)	-0.8 (0.8)	-1.0 (0.9)	0.4 (0.8)	0.1 (0.2)	1.1 (1.3)	0.1 (1.7)
		서비스	0.7 (2.2)	0.1 (2.9)	0.0 (2.7)	0.2 (2.7)	0.3 (2.6)	0.4 (2.5)	0.9 (2.6)
	생활물가	0.6 (2.9)	-0.5 (2.9)	-0.7 (2.6)	0.4 (2.7)	0.1 (1.9)	0.8 (2.2)	1.1 (2.6)	
	신선식품	-0.5 (-0.5)	-2.7 (-0.2)	-6.8 (1.2)	3.0 (0.6)	0.6 (-3.1)	6.8 (4.0)	-1.8 (2.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외 · 국 · 인 · 투 · 자 |

2007년 1/4분기 기준 서울의 외국인투자 전년동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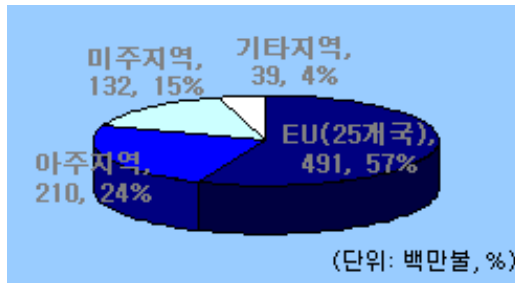
- 2007년 1/4분기 서울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동분기에 비해 감소경향
 - 투자건수는 전국이 전년동기(861건)에 비하여 5.8% 감소한 811건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341건) 대비 10.3% 증가한 376건으로 나타남
 - 투자금액은 전국이 전년동기(22억900만불)에 비하여 27.6% 감소한 15억9,900만불로 나타났고, 서울은 전년동기(11억4,300만불) 대비 23.7% 감소한 8억7,200만불로 나타남
 - 전년도에는 1억불 이상 대규모투자가 1/4분기에 2건(4억1,400만불) 있었으나 올해 1/4분기에는 한 건도 없음

- 산업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94.5%를 차지하고 제조업이 4.7%, 기타분야가 0.8%를 차지
 - 제조업의 경우 4,100만불로, 전년동기(1억1,700만불) 대비 64.9% 감소함
 - 서비스업의 경우 8억2,400만불로, 전년동기(10억2,400만불) 대비 19.5% 감소함
 - 기타분야의 경우 700만불로, 전년동기(200만불) 대비 250% 증가
 - 일본 '미르앤두루' (종합건설)에서 370만불, 캐나다 '오리엔트하드메탈즈 홀딩즈 코리아' (광업)에서 250만불 투자함

-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이 전체 투자금액의 45.9%로 가장 많고, 이어 문화오락 17.3%, 비즈니스서비스업 14.6%, 도소매(유통) 6.4%, 운수창고(물류)가 4%로 나타남
 - 금융·보험의 경우 4억100만불로 전년동기(6억6,500만불) 대비 39.6% 감소
 - 문화·오락의 경우 1억5,100만불로 전년동기(700만불) 대비 2,057% 급증
 -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1억2,800만불로 전년동기(97,600만불) 대비 68.4% 증가
 - 도소매(유통)의 경우 5,600만불로 전년동기(1억4,200만불 대비) 60.5% 감소
 - 운수창고(물류)의 경우 3,500만불로 전년동기(2,200만불) 대비 59% 증가

■ 지역별로는 EU가 4억9,100만불로 전체 투자금액 중 56.3%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이 싱가포르 1억3,500만불(15.5%), 미국 1억800만불(12.4%), 일본 4,300만불(4.9%) 순으로 나타남

- EU의 경우 전년동기(7억6,700만불) 대비 35.9%가 감소하였고, 일본의 경우 전년동기(1억 4,900만불) 대비 71.1%의 감소를 보임
-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전년동기(7,800만불) 대비 73%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도 전년 동기(8,400만불) 대비 28.5%의 증가를 보임



<그림> 외국인투자 국가별 현황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불)

구 분	2006.1/4		2007.1/4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업	0	0	2	3	-	-
제조업	48	117	38	41	-20.8	-64.9
비금속광물	3	48	0	0	-100	-100
기계 및 장비	9	24	3	11	-66.6	-54.1
전기·전자	19	25	16	14	-15.7	-44
기타제조	7	16	5	1	-28.5	-93.7
서비스업	289	1,024	333	824	15.2	-19.5
도소매(유통)	148	142	165	56	11.4	-60.5
음식·숙박	6	1	12	1	100	0
운수창고(물류)	14	22	14	35	0	59
통신	3	4	5	32	66.6	700
금융·보험	29	665	37	401	27.5	-39.6
부동산임대	12	105	15	18	25	-82.8
비즈니스서비스업	57	76	62	128	8.7	68.4
문화오락	17	7	18	151	5.8	2057
공공기타서비스	3	2	5	2	66.6	0
전기·가스·수도·건설	4	2	3	4	-25	100
전기·가스·수도	0	0	0	0	-	-
건설	4	2	3	4	-25	100
합 계	341	1,143	376	872	10.3	-23.7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3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3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39,044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0.8% 증가한 23,960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3.8%, 여자는 49.5%임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3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5,095천명으로 1.1% 감소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62.3%로 남자는 74.5%, 여자는 50.9%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1.7)	0.8 (0.7)	1.0 (-0.1)	1.1 (-1.9)	1.0 (-0.8)	0.7 (-0.2)	0.8 (1.8)
	서울	0.2 (0.3)	-0.1 (1.0)	-0.2 (0.3)	-1.0 (-0.9)	-0.4 (0.1)	-1.1 (-1.0)	-1.1 (0.3)
	남자	0.3 (1.2)	-0.3 (0.5)	-1.3 (-0.1)	-1.6 (-0.6)	-0.4 (0.3)	-0.4 (-0.2)	-1.2 (0.4)
	여자	0.1 (-0.9)	0.2 (1.7)	1.3 (0.8)	-0.2 (-1.3)	-0.4 (-0.2)	-1.9 (-2.1)	-0.8 (0.2)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5	62.4	62.3	61.1	60.5	60.4	61.4
	서울	63.1	63.2	63.4	62.8	62.8	62.1	62.3
	남자	75.4	74.7	74.6	74.3	74.3	74.2	74.5
	여자	51.5	52.3	52.7	52.0	51.9	50.8	50.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3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전국의 취업자는 23,1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73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3%(13,475천명), 여자는 41.7%(9,646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0%,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6%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은 감소세, 고령층은 증가세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됨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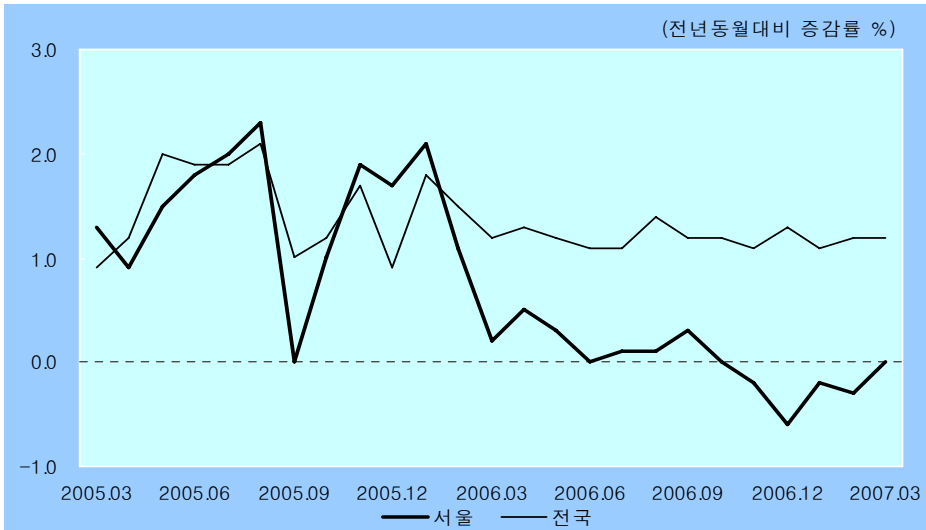
- 3월 서울의 취업자는 4,8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7%(2,816천명), 여자는 42.3%(2,066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0.6%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4% 감소한 반면에 여자는 0.5%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여자 취업자의 하락세는 증가세로 반전됨
- 전체 취업자의 21.1%(1,031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 감소하여 전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전체 취업자의 17.7%(720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6.1%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1.6%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9.9%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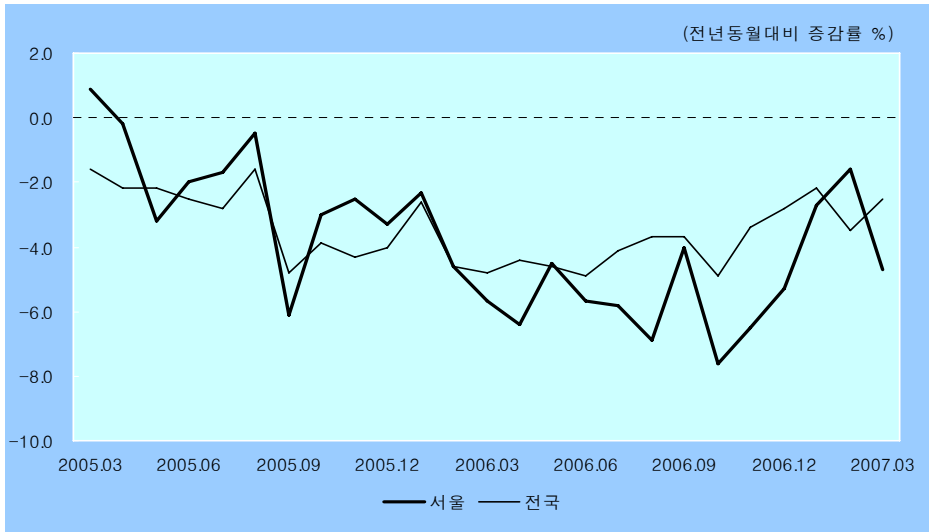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취업자	전국	1.2 (1.9)	1.2 (0.6)	1.1 (0.0)	1.3 (-2.0)	1.1 (-1.1)	1.2 (-0.2)	1.2 (2.0)
	서울	0.2 (0.4)	0.0 (0.5)	-0.2 (0.6)	-0.6 (-0.8)	-0.2 (-0.4)	-0.3 (-0.9)	0.0 (0.8)
	남자	-0.2 (1.4)	-0.3 (0.0)	-1.6 (0.1)	-1.5 (-0.7)	-0.9 (-0.4)	0.2 (0.5)	-0.4 (0.8)
	여자	0.7 (-0.9)	0.4 (1.3)	1.7 (1.3)	0.4 (-1.1)	0.7 (-0.3)	-1.0 (-2.7)	0.5 (0.7)
청년층 취업자	전국	-4.8 (-1.3)	-4.9 (-0.6)	-3.4 (1.0)	-2.8 (0.6)	-2.2 (2.2)	-1.6 (-2.1)	-2.5 (-2.2)
	서울	-5.6 (-0.9)	-7.6 (-2.3)	-6.5 (1.4)	-5.3 (1.1)	-2.7 (3.6)	-3.5 (-2.9)	-4.7 (-2.1)
고령층 취업자	전국	4.2 (8.1)	6.1 (2.7)	6.3 (-1.5)	6.4 (-7.8)	6.4 (-3.9)	6.4 (1.0)	5.6 (7.2)
	서울	3.4 (2.6)	8.2 (5.7)	7.4 (0.3)	6.3 (-1.8)	6.1 (-2.7)	6.3 (-0.6)	6.1 (2.2)
	55-59세	-1.9 (-1.0)	3.4 (2.0)	2.6 (1.3)	-1.6 (-3.4)	-1.6 (-2.3)	-2.3 (-1.0)	1.6 (3.0)
	60세 이상	8.1 (5.4)	11.9 (8.8)	11.4 (-0.5)	13.0 (-0.5)	12.8 (-3.1)	13.8 (-0.2)	9.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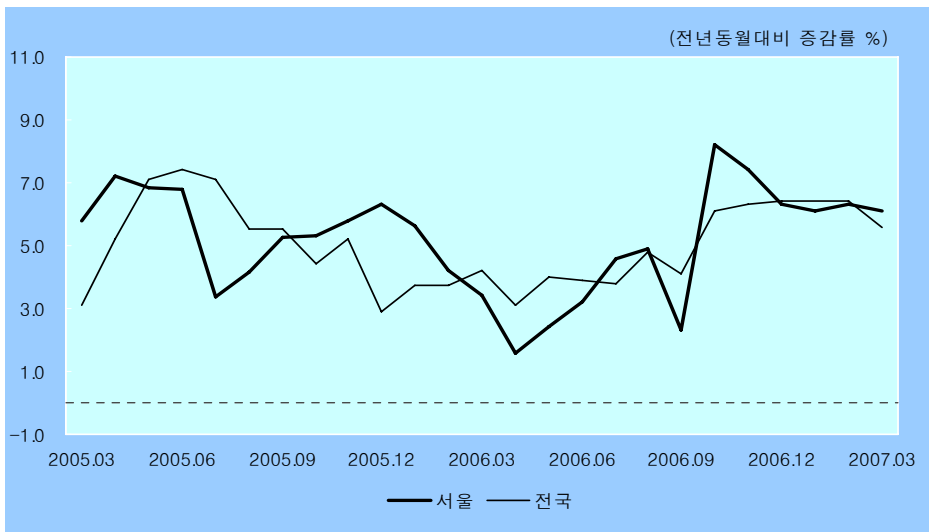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 수 감소**
 - 3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2%)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1%), 제조업(14.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4%), 건설업(8.8%)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어 건설업(1.5%)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11.1%,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3%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에 비해 큰 폭(2.6%p)으로 확대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 사무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3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5%), 서비스·판매 종사자(25.0%), 사무종사자(15.7%) 순임
 -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1.9%)와 사무종사자(0.4%)를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1.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4%)는 감소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지난달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며, 감소폭은 큰 폭(3.9%p)으로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 3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5% (3,590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5%(1,292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0.7%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0%(34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2.6%(-34천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지난달에 이어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일용근로자는 3.6% 증가한 반면에 임시근로자(-0.7%)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6.6%, 자영업자는 1.8% 감소하여 무급가족종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별	· 제조업	-4.6 (2.0)	0.0 (5.4)	-6.1 (-6.6)	-6.8 (-1.8)	-4.3 (0.8)	-8.5 (-3.2)	-11.1 (-1.0)
	SOC 및 기타서비스업	1.0 (0.2)	0.0 (-0.3)	0.9 (2.0)	0.5 (-0.7)	0.6 (-0.6)	1.2 (-0.5)	2.1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5 (0.4)	1.5 (0.5)	2.5 (2.8)	3.1 (-1.2)	4.5 (0.1)	5.3 (0.2)	6.7 (1.7)
	· 도소매·음식숙박	-1.7 (-0.8)	-1.8 (-0.6)	-1.2 (0.6)	-1.2 (1.4)	-2.6 (-2.4)	-3.4 (-2.0)	-2.2 (0.4)
	· 전기·운수·통신·금융	-1.8 (-2.1)	-0.4 (-1.0)	0.3 (4.0)	-0.3 (-0.2)	-0.1 (1.5)	0.9 (-0.8)	-1.3 (-4.2)
	· 건설업	4.1 (5.7)	0.1 (-2.0)	1.5 (0.6)	-3.7 (-5.7)	-3.9 (0.2)	0.2 (2.2)	1.5 (7.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5 (2.1)	1.4 (-0.6)	2.8 (1.6)	0.4 (-2.3)	3.0 (1.6)	4.1 (0.7)	1.9 (0.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종사자	-0.1 (2.2)	1.6 (3.0)	-1.0 (-1.9)	-3.0 (-3.5)	-2.3 (-0.2)	-0.6 (-2.2)	-1.4 (1.3)
	서비스·판매종사자	-2.0 (-1.2)	-3.9 (-0.8)	-2.5 (1.3)	1.7 (3.7)	-2.1 (-4.0)	-5.1 (-3.7)	-1.2 (2.9)
	사무종사자	1.7 (-2.9)	0.4 (0.1)	-0.9 (2.4)	-2.1 (-0.3)	0.5 (1.5)	-0.6 (-2.2)	0.4 (-1.9)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2.4 (1.0)	0.8 (0.8)	1.0 (0.5)	0.1 (-1.1)	2.2 (1.3)	1.8 (-1.0)	1.0 (0.2)
	비임금근로자	-5.2 (-1.0)	-2.0 (-0.3)	-3.4 (0.7)	-2.6 (-0.2)	-6.4 (-4.9)	-5.8 (-0.6)	-2.6 (2.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3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 3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3.5%(실업자 840천명)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실업자 559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2.7%, 고졸은 4.0%, 대졸 이상은 3.5%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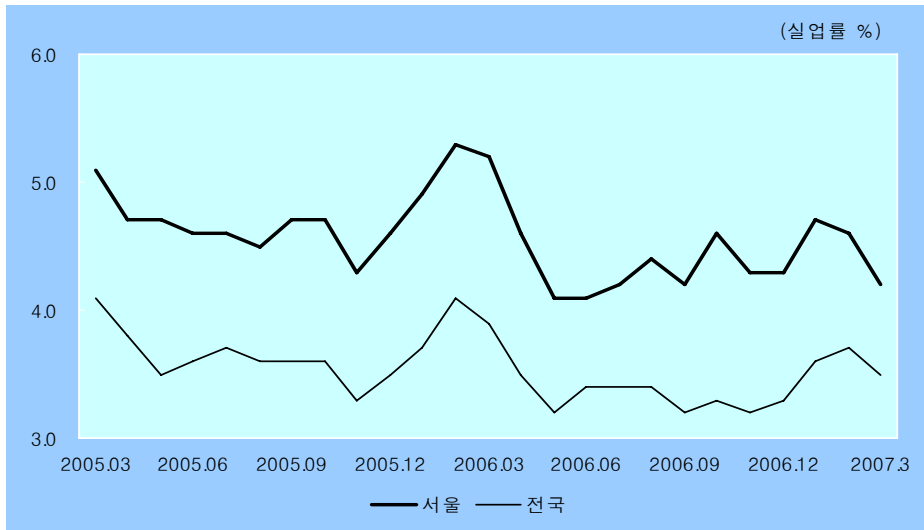
- 3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한 4.2%(실업자 212천명)임
- 3월 서울과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0.7%p)는 2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1/4분기 서울과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감소세를 보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 여자는 3.6%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8%p, 여자는 1.2%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0.6%p, 여자는 1.2%p 높은 수준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오던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의 차는 1월에 2.1%p로 최고를 기록하고 2월과 3월에 1.0%p로 보합을 나타냄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3.9	3.3	3.2	3.3	3.6	3.7	3.5	
서울	5.2	4.6	4.3	4.3	4.7	4.6	4.2	
성 별	남자	5.4	5.0	4.9	5.0	5.6	5.0	4.6
	여자	4.8	4.0	3.6	3.3	3.5	4.0	3.6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2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3,255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비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55.1%)이, 공종별로 보면 공장 및 창고, 주택 등을 중심으로 건축부문(64.7%)에서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8,53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9.7%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13.6%를 차지고 있으며, 2006년 월평균 전국대비 비중(16.0%)보다 2.4%p 낮은 수준임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95.5% 증가하였으며, 신규주택, 철도·궤도 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372.2%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4.9%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110.2% 증가하였으며, 4.3%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82.1% 증가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463,808㎡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30.2%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0.1%)과 연립(0.9%)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아파트의 신축허가면적이 0.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3월 대비 0.2%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용(17.6%)과 상업용(0.6%)이 증가하고 문교 및 사회(-1.0%)와 기타(-0.9%)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3월과 동일함
- 3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용산구가 총 43,891㎡(아파트 신축허가면적 31,144㎡)를 차지하며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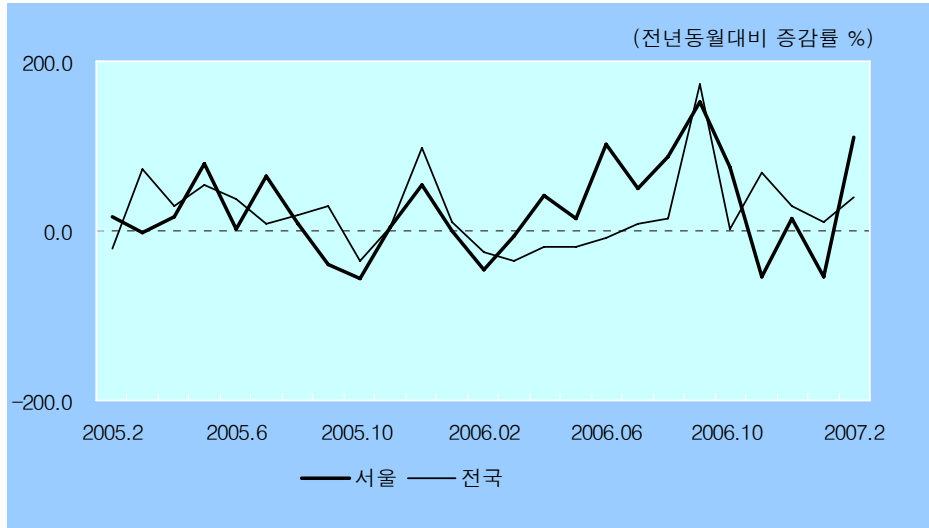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4,514.6	5,438.8	9,030.9	16,050.8	6,411.1	6325.5	40.1 (-1.3)	
서울	409.7	1,273.6	440.6	1,721.3	421.6	859.3	109.7 (103.8)	
발주 자별	공공	21.1	482.2	176.8	152.6	31.3	99.5	371.6 (217.9)
	민간	388.6	791.4	263.8	1,564.4	390.2	759.8	95.5 (94.7)
공종 별	건축	387.9	1,205.3	313.9	1,609.3	407.7	815.4	110.2 (100.0)
	토목	20.1	67.0	124.2	95.8	13.6	36.5	81.6 (168.4)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m²,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430,848	156,931	448,101	122,682	536,251	463,808	0.1	(-13.5)	
주거용	소계	118,633	64,486	153,946	58,578	46,534	140,262	0.2	(201.4)
	단독	5,219	3,474	1,400	870	4,008	5,631	0.1	(40.5)
	연립	50,293	51,180	71,199	46,509	41,498	96,209	0.9	(131.8)
	아파트	62,837	9,834	81,348	11,199	1,028	38,421	-0.4	(3,637.5)
비주거용	소계	312,215	92,445	294,156	64,103	489,717	323,546	0	(-33.9)
	상업	97,578	51,534	231,950	49,539	76,217	160,171	0.6	(110.2)
	공업	6,789	30,188	19,689	3,168	0	125,957	17.6	-
	문교/사회	143,177	10,018	41,591	10,283	412,534	28,292	-1.0	(-100)
기타	64,671	705	926	1,113	966	9,126	-0.9	(844.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감소

- 3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함으로서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2%p 감소함
- 이는 대출규제 등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연립주택,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상승현상이 나타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3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상승폭이 보합을 나타냄
- 11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이는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2%p 높은 수준으로 2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짐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6%, 강남은 0.2% 상승하여 지난 12월 이후 강북이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0.7%, 단독주택이 0.6% 상승하였으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0.2%의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0.6	1.3	3.1	1.9	0.9	0.4	0.2 (11.6)
서울	1.2	2.0	4.8	3.0	1.5	0.4	0.4 (18.5)
아파트	1.8	2.2	6.2	3.7	1.8	0.3	0.2 (22.2)
지역별	강북	0.5	1.5	4.1	3.8	2.0	0.6 (17.2)
주택매매	강남	2.6	2.3	5.4	2.2	1.1	0.2 (19.7)

주: 전월대비 증감률,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용산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7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5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상회함
- 성북구(1.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용산구(1.0%), 강북구(0.7%), 중랑구(0.7%), 마포구(0.6%), 은평구(0.5%), 중구(0.5%)의 순임
- 반면 노원구(0.4%), 서대문구(0.4%), 성동구(0.4%), 광진구(0.3%), 도봉구(0.3%), 동대문구(0.1%), 종로구(0.0%)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금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1.1%), 동작구(0.4%)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4%)을 하회함
- 강남구(-0.1%)와 서초구(-0.1%)는 전월에 비해 하락함
-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가 지속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감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감소됨
- 강북은 0.3%, 강남은 0.0%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강북구(1.9%), 금천구(0.5%), 동작구(0.5%), 마포구(0.5%), 노원구(0.4%), 관악구(0.4%), 영등포구(0.3%), 도봉구(0.3%), 중랑구(0.3%), 서대문구(0.3%), 성동구(0.3%), 구로구(0.2%)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강남구(-0.2%), 서초구(-0.1%), 양천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한 1,742만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0.1%p 증가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39만원), 서초구(2783만원), 송파구(2571만원), 용산구(2301만원), 양천구(2196만원), 강동구(1985만원), 광진구(1821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노원구(976만원), 도봉구(923만원), 강북구(914만원), 은평구(897만원), 금천구(886만원), 중랑구(884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3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3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1%p) 증가함
-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3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2%p) 증가함
- 평균적으로 3월은 봄 이사철 후반기로서 연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3월은 지난 22년간 3월 평균 증감률(1.6%)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 1.0%, 강남 0.3%의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은 0.7%, 아파트는 0.6%, 연립주택은 0.5%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0.7	1.0	1.0	0.6	0.4	0.3	0.4 (0.6)
서울	1.2	1.4	1.6	0.5	0.5	0.4	0.6 (8.9)
아파트	1.5	1.7	1.7	0.6	0.7	0.4	0.6 (9.7)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3	1.6	1.6	0.8	0.6	0.4	1.0 (11.3)
강남	1.6	1.3	1.6	0.5	0.5	0.4	0.3 (8.6)

주: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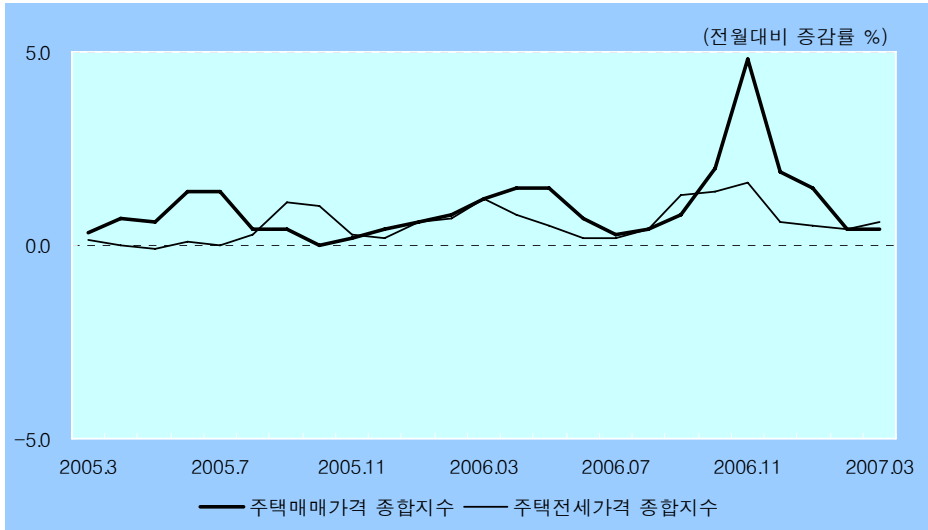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2.0%)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노원구(1.3%), 마포구(1.0%), 구로구(1.0%), 중랑구(0.9%), 성동구(0.7%), 도봉구(0.7%), 광진구(0.7%), 강서구(0.7%), 강북구(0.6%)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종로구, 양천구는 보합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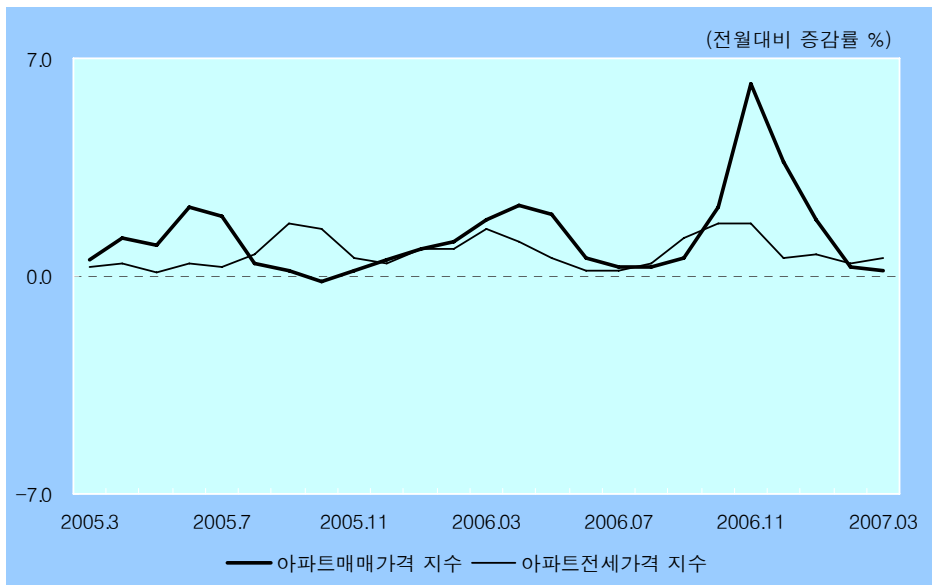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2%p 감소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1.0%, 강남은 0.3% 상승하여 지난 9월 이후 강북이 강남을 웃도는 추세가 지속됨
- 구별로는 성북구(2.3%), 강북구(1.6%), 노원구(1.4%), 마포구(1.1%)에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구로구(1.0%), 도봉구(0.9%), 서대문구(0.9%), 동대문구(0.8%), 성동구(0.6%)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지난 12월에 이어 양천구(-0.1%)는 전월 대비 하락함
- 3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한 615만원으로 강남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12월 이후 45% 미만 지속됨

- 2007년 3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0%로 지난 2월에 비해 미미한 (0.2%p) 상승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4%를 11.4%p 밀돌고 있으며 확대되던 전국과의 격차(9월:9.0%p 10월:9.1%p, 11월:10.1%p, 12월: 10.9%p, 1월: 11.4%p, 2월: 11.5%p)는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7%, 강남은 37.4%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됨
- 지난 11월 이후 강남지역은 3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비해 매매가격 상승이 훨씬 높았음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3월중 KOSPI 지수 전월 상승세를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하락
 - 3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2.06%p 하락한 4.76%로, 하락세가 이어짐
 - 이는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과 글로벌 증시 급락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단기 금리 하방경직성과 장단기 금리차 확대 기대감 등을 하락폭이 제한됨
- CD(91일) 유통수익률 동일
 - 3월말 CD 유통수익률은 2월 중순 이후 등락 없이 4.49%를 유지함
 - 3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61%로, 전월대비 0.06%p 상승함
- 장·단기 금리차 축소
 - 3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축소됨
- KOSPI 지수 전월 상승세를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 3월중 KOSPI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등 미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 반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1,452.55p로 마감됨
 - KOSDAQ 지수도 3.30일 연중 최고치(648.99p)를 기록하며 마감하는 등 건조한 상승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 상승
 - 3월중 원/달러 환율은 월초 상승세로 출발하였으나,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상충되며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됨
 - 월 초반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우려로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3.5일 951원대까지 상승함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배당에 따른 본국으로의 역송금 수요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제한되어 월 후반에는 94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940.9원으로 보합 마감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5일		
금 리	국고채(3년)	4.82	4.92	5.02	4.86	4.76	5.00	-2.06
	CD(91일물)	4.67	4.86	4.96	4.94	4.94	4.97	0.00
	콜금리(1일)	4.49	4.60	4.61	4.55	4.61	4.74	1.32
	장·단기 금리차 ¹⁾	0.33	0.32	0.41	0.31	0.15	0.26	-51.61
주 가	KOSPI ²⁾	1,432.2	1,434.5	1,360.2	1,417.3	1,452.6	1,545.6	2.49
	KOSDAQ ²⁾	622.2	606.2	576.4	600.9	649.0	683.7	8.00
환률 (W/US\$) ²⁾	929.5	930.6	940.9	941.8	940.9	926.8	-0.10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 - 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3월말 은행의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강화 및 주택매입수요 위축 등에 따른 신규대출 증가세 둔화,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양도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최근 3년간의 3월 평균 실적(+1.5조원)을 하회하는 0.7조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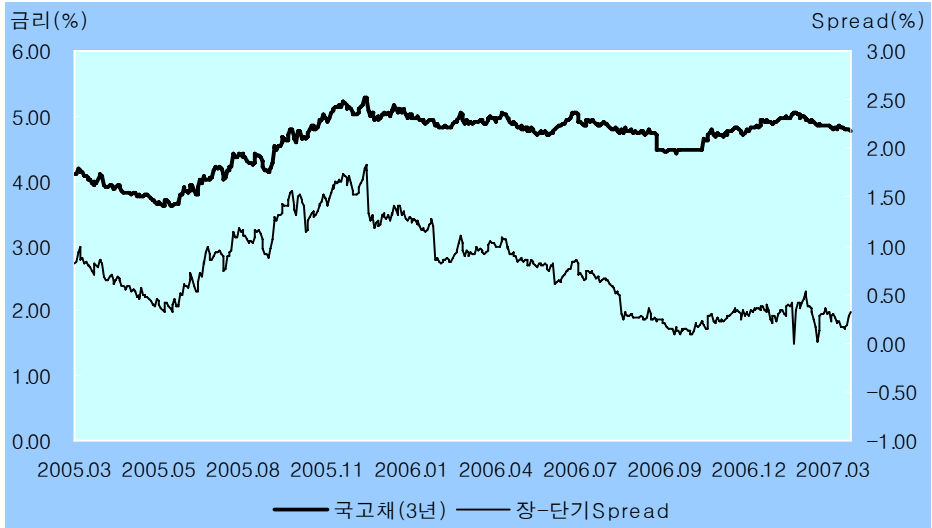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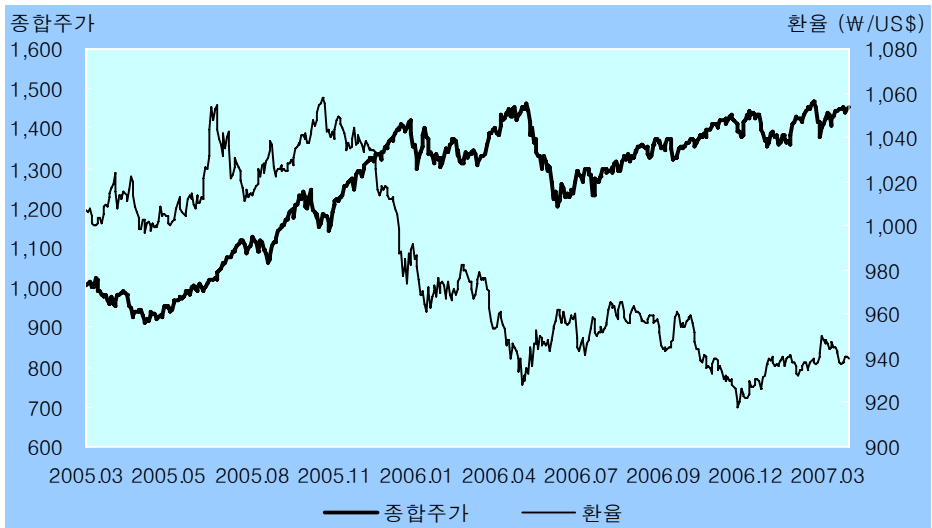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3월	12월	1월	2월	3월	2007년		
							2월	3월	
가계대출 ¹⁾	40.9	2.6	5.0	-0.2	1.9	0.7	347.3	348.0	0.20
주택담보대출 ²⁾	26.8	1.2	3.2	0.7	0.4	0.0	218.2	218.2	0.00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5	1.7	-0.9	1.5	0.7	127.5	128.2	0.5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폭 확대

- 2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9조 9,775억원 증가한 929조 7,383억원으로, 증가폭은 전월(3조 482억원)보다 세배 이상 확대됨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55조 7,704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 1,438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8,648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증감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예금은행	623,634.3	692,188.3	699,430.3	700,256.6	708,048.2	7,791.6
	비은행기관	192,532.4	214,453.9	217,282.3	219,504.2	221,690.1	2,185.9
	합계	816,166.7	906,642.2	916,712.6	919,760.8	929,738.3	9,977.5
서울	예금은행	266,050.9	287,087.7	291,319.0	289,422.6	291,432.1	2,009.5
	비은행기관	50,187.9	60,244.8	60,442.8	63,204.0	64,338.3	1,134.3
	합계	316,238.8	347,332.5	351,761.8	352,626.6	355,770.4	3,143.8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2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동일

- 2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과 동일한 55.1%를 기록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83.4	84.6	85.3	83.2	84.0	83.9	-0.1
서울	58.6	57.0	57.3	55.8	55.1	55.1	0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3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3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1.17%(860개) 증가한 4,932개임
- 업종별로는 전월대비 제조업(34.8%), 건설 및 설비업(4.1%), 서비스업(22.6%) 등 전업종이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3.3%, 제조업 19.1%, 건설 및 설비업 16.5%를 차지함
- 2007년 1/4분기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14,341개로 나타남

■ 서울 신설법인 수 증가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3.3%(355개) 증가한 1,879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1%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월대비 서비스업(23.6%), 제조업(23.6%), 건설 및 설비업(20.2%) 등 전업종이 증가함
- 2007년 1/4분기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분기 보다 686개 증가한 5,384개임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증가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586개로 전월대비 23.6%(303개) 증가함
- 부문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6.7%)를 제외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59.4%), 통신업(58.3%), 부동산 및 임대업(30.2%) 등 대부분이 증가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4.1%)과 비슷한 84.4%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915	4,223	5,337	4,072	4,932	860	21.1	17	0.3
서울	1,925	1,623	1,981	1,524	1,879	355	23.3	-46	-2.4
서비스업	1,550	1,420	1,639	1,283	1,586	303	23.6	36	2.3
제조업	192	109	150	110	136	26	23.6	-56	-29.2
건설 및 설비업	180	92	192	129	155	26	20.2	-25	-13.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3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3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대비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6개로, 전월(159개) 보다 57개 증가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상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61개→79개)과 건설업(24개→41개), 서비스업(67개→91개) 등 모두 증가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3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59개) 보다 6개 증가한 65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도업체 수 6개, 지방은 51개(100개→151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0.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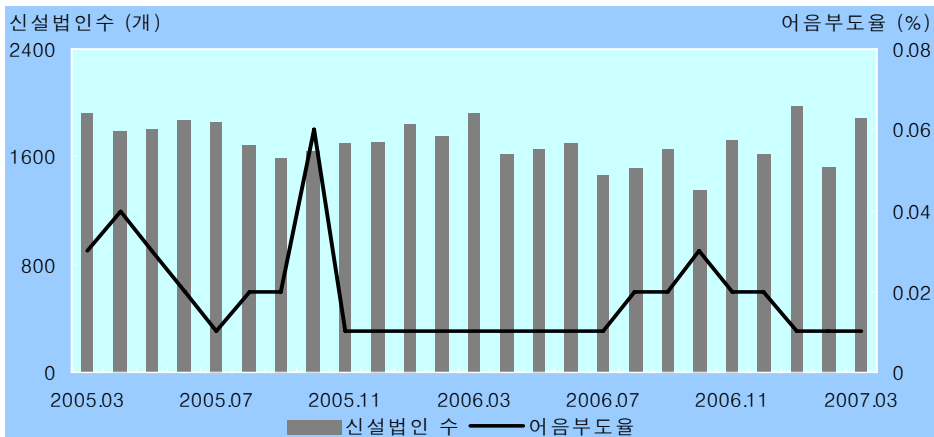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2	0.02	0.01	0	-50.0	0	-50.0
	부도업체 수	241	169	188	159	216	57	35.8	-25	-10.4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1	0.01	0.01	0	0.0	0	0.0
	부도업체 수	88	58	66	59	65	6	10.2	-23	-26.1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3월 기준 안정적인 보증공급 추세 지속

■ 보증 건수 및 금액의 증가세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월중 1,863건, 55,239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85.37%, 금액 64.97% 증가함
- 「2007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증가 등으로 보증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1천만원 이하)의 영향으로 건당평균금액은 다소 감소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946	1,115	1,081	621	1,005	1,863	858	85.37	917	96.93
금액	21,442	39,923	39,401	17,892	33,485	55,239	21,754	64.97	33,797	157.62
건당평균금액	22.7	35.8	36.4	28.8	33.3	29.7	-3.6	-10.81	7.0	30.8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의 비율 증가

- 3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8.6%p 증가하여 25.2%를, 도소매업의 비중은 7.6%p 감소하여 33.3%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65	689	350	422	137	1,863
비율	14.2	37.0	18.8	22.6	7.4	100
금액	13,933	18,409	6,465	11,650	4,782	55,239
비율	25.2	33.3	11.7	21.0	8.8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기기업의 비중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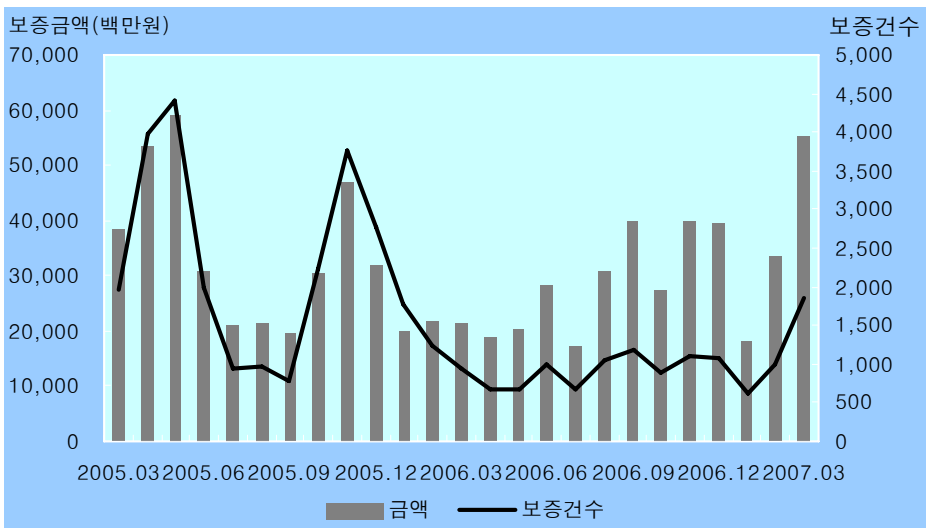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중기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3.0%p 상승하여 8.6%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비중이 각각 2.8%p, 0.2%p 소폭 하락하며 대체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1	2007.02	2007.03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572	918	1,716	798
	비율	92.1	91.3	92.1	0.8
	금액	14,700	24,724	39,220	14,496
	비율	82.2	73.8	71.0	-2.8
소기업	건수	39	71	116	45
	비율	6.3	7.1	6.2	-0.9
	금액	2,254	6,889	11,245	4,356
	비율	12.6	20.6	20.4	-0.2
중기업	건수	10	16	31	15
	비율	1.6	1.6	1.7	0.1
	금액	938	1,872	4,774	2,902
	비율	5.2	5.6	8.6	3.0
합계	건수	621	1,005	1,863	858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7,892	33,485	55,239	21,75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3월 기준 서울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수출 견실한 증가세 지속

- 3월 전국의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24.0→23.5일)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의 수요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한 30,486백만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고부가가치인 선박의 인도물량 증가에 따라 선박(38.3%)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제품(32.8%), 철강제품(29.6%), 화공품(15.7%)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주도함

■ 전국 수입 증가세 지속

- 3월 전국의 수입은 29,056백만 불로,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됨
- 용도별로는 소비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원자재 및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고, 품목별로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철강재(48.5%)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서울 수출 증가세 확대

- 3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2,340백불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됨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65.6%), 기계류(35.3%) 등이 증가하고, 기타제품(-68.5%), 화학공업제품(-8.6%)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11.7%), 일본(1.8%), 러시아연방(39.8%) 등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6.5%)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증가세 지속

- 3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한 5,469백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71.6%), 광산물(34.7%) 등 대부분이 증가하고 섬유류(-4.7%) 등은 감소함. 국가별로는 중국(13.1%), 일본(23.0%), 스위스(87.4%) 등 대부분이 증가하고 미국(-6.2%), 프랑스(-7.2%) 등은 감소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6,840	30,661	28,775	28,091	26,240	30,486	3,646	13.6	4,246	16.2
	수입	25,945	26,763	27,518	27,681	25,289	29,056	3,111	12.0	3,767	14.9
서울	수출	2,190	2,192	2,222	2,009	1,835	2,340	150	6.8	505	27.5
	수입	4,925	5,267	5,160	5,192	4,803	5,469	544	11.0	666	13.9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